'고온' 환경서 발생…열사병은 조치 늦어지면 생명 위험



강주오 행복을주는 가정의학과 원장

일사병·열사병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환자 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서는 의식 저하, 어지럼증, 탈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종종 입원 치료를 요하는데, 이 중에서도 자주 언급 되는 질환이 '일사병'과 '열사병'이다. 두 질환

모두 고온 환경에 의해 발생하지만, 위험도와 응급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정확한 이해 가 필요하다.

이에 강주오 행복을주는 가정의학과 원장을 통해 일사병과 열사병의 다른 점을 알아보고 증 상, 대처법 등도 짚어본다.

◇일사병(Heat Exhaustion)

일사병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기 시 작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과 전해질이 급 격히 소실될 때 발생한다. 장시간 더운 환경에 노출된 가운데 여전히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의심 해봐야 한다.

주요 증상은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축축하 다 ▲어지럼증, 메스꺼움, 두통 ▲맥박이 빠르고

단어 유사…증상 다르고 위험도 차이 땀 발생・의식 유무 등 살펴 대처해야 수분 섭취·한낮 외출 자제 등 중요

약하다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이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시 치료 및 대처법은 즉시 서늘한 장소로 옮기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며, 옷 등을 느슨하게 한 뒤 냉찜질을 하는 것 이다.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휴식과 수분 보충으 로회복이 가능하다.

◇열사병(Heat Stroke)

열사병은 일사병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로,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체온이 40 도 이상으로 치솟고, 땀이 나지 않으며, 의식장 애가 동반되는 응급질환이다.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뇌, 간, 신장 등 장기 손상으로 이어지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주요 증상은 ▲체온 40도 이상 ▲피부가 뜨 겁고 건조하며 땀이 나지 않음 ▲혼란, 경련, 실신 ▲빠르고 강한 맥박 ▲의식 저하 또는 무 반응 등이다.

치료 및 대처법은 즉각 119에 신고하고, 체온 을 빠르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는 옷 을 벗기고 몸을 물수건이나 얼음팩으로 식히며, 선풍기나 냉풍을 사용한다. 절대로 회복을 기다 리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주의'

일사병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열사병으로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땀 이 나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단순히 더위에 따른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의식이 흐려지고 체온이 높아지면 반드시 응급상황이라는 점을 꼭 기억 해야하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지키는 건 나 의 준비와 실천이다.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한낮 외출을 피하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인다면 더 위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무 더위에 지지 마시고,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 /정리=기수희기자



광주보훈병원은 최근 지방보훈병원 중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광주보훈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지방보훈병원 중 처음

광주보훈병원이 지방보훈병원 중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5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 향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 명의료가 시행되지 않도록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 서로 남겨 등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취지 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광주보훈병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원무2부 진료

협력센터(사회사업실)를 중심으로 의향서 작성 및 상담을지원하며이달말부터는상담실을전문진료 센터 1층 신경과 앞 공간으로 이전해 보다 체계적으 로운영한다.앞서병원은지난9일등록기관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고제도운영을 공식화했다.

이삼용 병원장은 "광주보훈병원의 역할과 진료 기능을 고려하면 등록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 다"면서도 "이제라도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진료 환경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노력하겠다"고말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전남에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정신 전남대병원장, 서남권 포럼서 '도심집적형 메디컬 클러스터' 제시

전남대병원이 광주·전남 지역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서남 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하 게 주장했다.

15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정신(사진) 전 남대병원장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 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포 럼'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인공지능(AI), 정밀 의료, 재생의료 기술의 혁신과 함께 전례 없는 변 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서남권바이오헬스복합단지는단순한산업 단지를 넘어 연구와 임상, 산업화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국가적 전략 거점이 돼야한다"고밝혔다.

해당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전진숙·신정훈·서미 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 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강대희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장 이 좌장을 맡았으며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 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 표, 최종일 조선대 교수,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 건산업정책과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 원이 패널로 참여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화, 저성장 국면 속에서 디지털・바이오 의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 원장은 "AI기반첨단의료기기실증 및 재생

의료R&D 인프라에 대한 지역 집중 투자가 필요하 다"며 광주·전남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도심집 적형 AI+Bio 융합메디컬클러스터'를제시했다.

광주는 AI 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 기술을, 전남은 백신·원료의약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두 기술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전남대병원은 서남권 유일 제1기 연 구중심병원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가 지역의 료역량 강화사업 선정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선정 등 타 지역 대비 탁 월한 연구 성과와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광주·전남은 수도권 을 보완하는 지역이 아닌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 업의 미래를 이끄는 주도적 파트너로서 대한민 국 바이오헬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 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수희기자

목포기독병원, '응급 복부수술 시범사업' 선정

복지부 주관…골든타임 내 환자 생존율 1

목포기독병원(사진)이 보건복지부 주관 '외 과계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관

15일 목포기독병원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응급수술 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복부 응급수 술이 가능한 지역 병원에서 골든타임 내 치료를 통해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제도다.

대상 병원은 연간 50건 이상의 복부 응급수술 실적을 보유하고, 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포 함총 3명 이상의 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다.

시범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3년6개월간이 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 될수있다.

김근호 목포기독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선정으로주민들에게보다신속하고안

대출상품비교



전한 응급수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야간과 주말에도 수술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구 축해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역할을수행하겠다"고말했다.

한편 목포기독병원 외과는 전남 서남권에서 유일하게 맘모톰 수술 4천건 이상을 기록하며 유방·갑상선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급성충수염 3천건, 복강경 담낭수술 1천300 건 이상의 실적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응급수술 역량을 갖추게 /목포=정해선기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등록번호: 2023-광주광산-0025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010-3929-1403